

唐詩 중의 '江南' 意象 初探

崔宇錫*

<목 차>

1. 머리말
2. 唐詩 중의 '江南' 意象
3. '江南' 意象의 來源
4. 결어

1. 머리말

고대 중국의 문인에 있어서 '江南'은 주로 변화하고 발달한 문화의 고향, 혹은 자연 풍광이 수려한 물의 고향 등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이러한 인식 등을 통해 '江南'은 하나의 '詩性'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으니, 그것은 단순한 자연 지리상, 행정 구역상의 '地域'이 아닌 문화 관념이 투영된 하나의 문화적, 심미적 意象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唐代는 중국의 고대문명이 가장 발달한 문화의 번성시기였다. 경제는 부강해 지고, 국력은 주변 국가들이 감히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으며, 문화는 절정에 달해 있었다. 이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 문인들은 일반적으로 '建功立業'에 대한 의지를 다졌으며, 이러한 의지는 邊塞詩라는 형식에서 소리 높여 부르는 北方의 강인한 정신으로 대변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에 비해 '江南'은 유약하고 아름다운 정서를 대변하는 경우가 허다해 그와는 매우 큰 대조를 이루었다. 실제로 당대의 많은 문인들은 '강남'을 제재로 하는 시작을 다량

창작했으며, 그 내용도 사뭇 다양했다. 혹자는 '강남'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지만, 혹자는 '강남'을 제재로 '隱逸'의 뜻을 드러내기도 했으며, 혹자는 '강남'을 제재로 기이한 풍경을 노래하기도 했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唐詩 속에서 표현된 '江南'이라는 지역이 주는 자연적, 인문적 意象을 점검해 보고, 그러한 意象이 형성하게 된 배경과 그 來源을 初探해 보는 것에 그 주지를 두고자한다.

한편 '江南'이 가리키는 지역은 중국의 역사 속에서 그 범위가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었다.¹⁾ 먼저, '江'이라 함은 '長江'을 가리키는 것으로, 先秦이나 東漢 시기에는 '江南'이라는 단어는 아직 고유명사로 사용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東漢 시기에 이르러 '江南'은 통상 '荊襄(현재의 湖北, 湖南一帶)' 지역을 일컫는 명사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魏晉南朝 시기에 이르러서는, 주로 長江의 중류와 하류 이남의 지역 및 建康(현재의 南京)을 중심으로 한 吳越 지역을 범칭하게 되었다. 이러한 江南의 개념은 唐代에 이르러 비로소 확실한 地名으로 사용되었다. 唐朝는 貞觀元年(627年)에 전국의 州郡을 關內道, 河南道, 山南道, 江南道 등 10개의 道로 나누었던 것이다. 이 가운데 江南道는 현재의 浙江省, 福建省, 江西省, 湖南省 등과 江蘇省, 安徽省의 長江 이남 지역과 湖北省, 四川省의 일부 지역 및 貴州省의 동북부 일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開元21年(734년)에는 江南道를 江南東道, 江南西道로 다시 세분화하였다. 이 가운데 江南東道는 현재의 蘇州市와 上海市를 포함한 江蘇省 남부와 浙江省, 福建省을 아우르고 있었으며, 江南西道는 오늘날의 湖南 洞庭湖의 동쪽 일대와 湖北省 江南 일대 및 江西省과 安徽省의 남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 지칭하는 '강남'은 唐代에 통용되던 '江南道' 지역을 지칭하고 있음을 먼저 밝혀 둔다.

* 又松大學校 中國學部 專任講師.

1) 본고에서 서술하는 江南에 대한 중국 역사상의 개념은 景遐東, <唐前江南概念的演變與江南文化的形成>, 《沙洋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008年, 第1期, 30-34쪽 참조.

2. 唐詩 中的 ‘江南’ 意象

시가 창작에 있어서 ‘意象’이라는 용어는 비교적 풍부한 함의를 갖는데, 일반적으로 ‘주관적인 뜻’에 해당하는 ‘意’와 ‘객관적인 대상’에 해당하는 ‘象’이 결합된 의미로 파악되어진다. 袁行霈는 “意象은 주관적인 감정을 융화시킨 객관적인 物象이거나, 혹은 객관적인 物象을 빌려 표현된 주관적인 감정이다.”²⁾라고 보았으며, 陳植鏗은 《詩歌意象論》에서 “물질세계의 ‘象’이 일단 작가의 ‘뜻(意)’에 근거하여 일정한 언어 조합으로 반영되고 또한 서면의 문자로 고정된 후에, 일종의 마음이 깃든 ‘意象’이 된다.”³⁾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江南’이라는 하나의 객관적인 ‘象’에 대해서 唐代的 시인들은 어떠한 주관적인 감정을 투영시켜 ‘意象’을 창조해 내었을까? 唐詩 속에서 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크게 두 가지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강남’의 실제 산수자연의 경물에서 취득한 ‘自然意象’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적 인문 전통과 사회, 문화적인 요인에서 기인하는 ‘人文意象’이라 할 수 있다.

(1) 自然意象

唐詩 속에서 ‘江南’을 제재로 한 작품은 그 수를 모두 헤아리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많다. 특히 ‘강남’을 시의 제목에서 그대로 원용한 경우도, 당시 속에는 약 50여 편이 보인다.⁴⁾ 그 제목을 보면, <思江南>, <憶江南>, <江南別>,

<江南雜題>, <狀江南> 등 다양하게 보인다. 이 가운데에는 ‘강남’의 수려한 자연 경물을 묘사하며, ‘강남’을 하나의 아름다운 세계와 동일시하려는 작품들이 가장 많이 눈에 띈다. 먼저, 陳標(대략 822년 전후에 활약함)의 <江南行>⁵⁾을 예로 든다.

水光春色滿江天	물빛은 봄 색으로 강 하늘에 가득하고
蘋葉風吹荷葉錢	개구리밥 풀잎에 바람이 부니 연잎은 동그라미
香蟻翠旗臨岸市	향기로운 술 비취 깃발로 강가는 저자를 이루고
豔娥紅袖渡江船	아름다운 여인 붉은 소매로 배를 타고 강 건너네
曉驚白鷺聯翩雪	새벽빛에 놀란 흰 백로는 눈처럼 하늘을 날고
浪蹙青菱激灑煙	물보라가 푸른 줄풀나무를 치니 연무가 일렁이네
不怕江洲芳草暮	강 가운데 작은 섬에 향초 시드는 것 두렵지 않으리니
待將秋興折湖蓮	가을 날 흥 돌을 때 기다려 호수의 연꽃을 꺾으리라

흰 백로, 붉은 소매, 푸른 줄풀나무 등의 시각과 향기로운 술, 향초 등의 후각 등을 이용하여 싱그럽고 선명한 봄 강남의 정경을 눈앞에 펼치듯 묘사하고 있다. 아름답고 순수한 강남의 풍경 묘사 속에는 그 어떠한 사특한 마음도 보이지 않는다. 이어서 李中(대략 972년 전후에 활약함)의 <江南春>⁶⁾을 살펴보자.

千家事勝游	백성들이 모두 유람을 일삼으니
景物可忘憂	경물은 가히 근심을 잊을 만 하네
水國樓臺晚	수국의 누대에 저녁이 드니
春郊煙雨收	봄날의 근교엔 연무와 비가 그쳤네
鷓鴣啼竹樹	자고새는 대나무에서 울고
杜若媚汀洲	두약은 모래섬에서 아름답네
永巷歌聲遠	깊은 골목의 노래 소리 멀어지니
王孫會莫愁	왕손은 막수호에서 만날 수 있으리

강남의 아름답고 순수한 풍경은 시인으로 하여금 ‘근심을 잊게 한다(可忘憂).’

2) 袁行霈, 《中國詩歌藝術研究》(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7), 66쪽: “意象是融入了主觀情意的客觀物象, 或者是借助客觀物象表現出來的主觀情意.”

3) 陳植鏗, 《詩歌意象論》(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0), 15쪽: “物質世界的象一旦根據作家的意被反映到一定的語言組合之中并且用書面文字固定下來之後, 便成爲一種心靈化了了的意象.”

4) 張鵬, 《樂府古辭江南考論》(中國社會科學院碩士學位論文, 2003), 16쪽: “唐詩中以江南爲題的詩作, 大約有50餘篇.”

5) 《全唐詩》, 第508卷, 第008首.

6) 《全唐詩》, 第748卷, 第022首.

'물의 나라(水國)'으로 표현된 강남의 봄에는 '안개, 비(煙雨)'와 아름다운 새 소리가 부드러운 어조로 형상화되었다. 이어서 강남의 가을 풍경을 읊은 殷文圭(대략 898-919년 전후에 활약함)의 <江南秋日>⁷⁾을 살펴보자.

水國由來稱道情	수국은 예부터 정(情)으로써 예찬 받았기에
野人經此頓神清	초야 문헌 이 이곳을 지날 때 돌연 정신이 맑아오누나
一篷秋雨睡初起	한 조각 작은 배 위에 가을 비 내리니 막 잠들다 깨고
半硯冷雲吟未成	반 남은 벼루의 먹물 있어도 차가운 구름을 다 읊지 못하네
青笠漁兒筒釣沒	푸른 삿갓 쓴 고기잡이 아이의 통발은 이미 낚시질로 꽂 찼고
蓑衣菱女畫橈輕	진홍 빛 옷 입고 마름 풀 따는 여인네의 화려한 노는 가볍네
冰綃寫上江南景	얇은 흰 비단에 강남의 풍경을 그려 넣어
寄與金鑾馬長卿	경성 한림원의 사마상여 같은 친구들에게 보내주리라

정신이 번쩍 드는 강남의 가을 풍경을 가을비, 낚시 하는 아이, 마름 풀 따는 여인네의 노닐 등을 통해 한 폭의 산수화처럼 묘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남의 겨울을 노래한 謝良輔(?-783年)의 <狀江南孟冬>⁸⁾도 살펴보자.

江南孟冬天	강남에 막 겨울이 드니
荻穗軟如綿	물억새 이삭은 솜처럼 부드럽네
綠絹芭蕉裂	녹색 비단 같은 파초는 갈라지고
黃金橘柚懸	황금 빛 귤과 유자는 매달려 있네

'파초(芭蕉)', '귤, 유자(橘柚)' 등의 남방의 이국적인 경물을 동원하며, 강남 겨울 풍경을 역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唐代의 많은 시가 속에는 강남의 산수를 아름다움으로 찬미하는 내용이 그 주를 이루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렇듯 '강남'을 '아름다움'의 '等價'로 인식하는 것은 이미 당시 속에서 일반화된 현상으로, 바로 이러한 현상은 강남의 '自然意象'이 당시 속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7) 《全唐詩》, 第707卷, 第011首.
8) 《全唐詩》, 第307卷, 第017首.

(2) 人文意象

하나의 지역이나 자연경물이 표면적으로 묘사될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자연의상'에 속한다. 그러나 그것이 문학, 문화 혹은 역사적 사건 혹은 대표성을 띠는 특정 인물이나 장소 등의 인문 요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 '人文意象'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러한 경우 그것은 단순한 '자연의상'을 뛰어넘어 더욱 깊고 복잡한 심층적 審美를 포함하게 됨은 자명하다. '강남'의 '의상' 역시 그곳의 역사, 문화, 특정지리 등의 인문학적 요소로 인해 더욱 더 풍부한 '人文意象'을 함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것을 크게 '仕와 대립되는 의상'과 '偏僻한 지방의 의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仕'와 대립되는 意象

'강남'은 唐代의 수도 長安과는 거리상 상당히 동떨어진 곳이다. 따라서 당연히 화려한 人工의 장안과는 상반된 이미지를 지닐 수밖에 없다. 장안이 관직을 구하여 세속의 영달과 입신양명을 꾀하는 치열한 속세의 격투장이라면, 강남은 이와는 상반되게 자연과 더불어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안식처와 같은 공간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唐代의 많은 문인들은 폼적을 당하거나 혹은 정치적 失意를 당했을 때 강남의 산수를 찾으며 마음의 위안을 찾았고, '강남'은 자연스럽게 '仕'와는 대립된 개념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특히 '隱逸'의 풍토가 유행하던 唐代에 있어서 강남은 은일의 훌륭한 장소가 되어주었다.

사실 '隱逸' 문화는 중국의 커다란 전통 중의 하나이다. 孔子는 일찍이 "나라에 도가 있으면 즉 벼슬을 하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즉 재주를 말아서 그것을 가슴에 품는다."⁹⁾라고 언급한 바 있고, 孟子는 "궁하게 살면 그 몸을 홀로 착하게 하고, 나아가 벼슬하면 천하 사람을 다 착하게 한다."¹⁰⁾라고 한 바 있다. 이러한 가르침

9) 《論語·衛靈公》: "邦有道則仕, 邦無道則可卷而懷之."
10) 《孟子·盡心上》: "窮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下."

은 후세의 문인들이 ‘은일’ 문화를 형성하는데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다. 또한 道家 학파는 ‘無爲自然’을 숭상하며 ‘은일’ 문화를 형성하는데 또 다른 역할을 하였다. 실제로 周 왕조에 반대하며 수양산에 들어가 隱逸한 伯夷와 叔齊 이래로 長沮, 桀溺, 四皓 등 수많은 은사들이 출현하였으며, 晉代에는 “고금 은일시인 (隱逸詩人)의 종(宗)”¹¹⁾으로 평가 받는 陶淵明이 출현하기도 했다. 이후 唐代에 이르러서 ‘隱逸’은 하나의 광범위한 문화 전통으로 자리 잡았으며 孟浩然(孟浩然), 王維(王維), 儲光羲(儲光羲), 韋應物(韋應物) 등의 손에서는 수많은 주옥같은 은일시가 탄생하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唐人들의 詩文中에서 江南은 바로 退隱의 상징이며, 洛陽과 長安으로 대표되는 ‘조정(朝)’의 상대개념으로 강남은 ‘野’를 의미하고, 洛陽과 長安에서 떠돌며 벼슬생활을 하는 것은 ‘仕’이고 ‘出’이며, 강남에서 한가로이 노니는 것은 ‘隱’이요 ‘處’인 것”¹²⁾이라는 점이다. 즉, 唐代의 문인들은 ‘강남’을 서울에서 벼슬하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의 ‘意象’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예로 孟浩然(698-740年)의 <自洛之越>¹³⁾을 살펴보자.

皇皇三十載 허둥지둥 삼십년 세월 보냈으나
書劍兩無成 문과 무에서 모두 이룬 것이 없노라
山水尋吳越 산수 속에서 오월을 찾노라니
風塵厭洛京 풍진 속의 서울 낙양이 싫증나노라
扁舟泛湖海 일엽편주를 호수바다에 띄워놓고
長揖謝公卿 공경대부에게 길게 작별인사 올리네
且樂杯中物 잔속의 술에 즐거워하노라니
誰論世上名 그 누가 세속의 공명을 논하라

이것은 孟浩然이 40세 되던 해에 청운의 꿈을 꾸고 長安, 洛陽에 와서 出仕를 하고자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은거하고자 하는

11) 曹旭集注, 《詩品集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260쪽: “古今隱逸詩人之宗也”
12) 左鵬, <論唐詩中的江南意象>, 《江漢論壇》, 2004年, 3月, 97쪽: “在唐人的詩文中, 江南就是退隱的象徵, 與兩京代表的朝相對應, 江南意味着野.”
13) 《全唐詩》, 第160卷, 第091首.

뜻을 드러낸 작품이다. 강남을 대변하는 ‘오월(吳越)’을 ‘수도 낙양(洛京)’과 대비시켜 ‘出仕’에 대립된 개념인 ‘隱逸’의 ‘의상’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고 있다. 이어서 顧況(727-815年?)의 <別江南>¹⁴⁾을 살펴보자.

江城吹曉角 강가의 성곽에서 새벽 호각 부니
愁殺遠行人 멀리 떠나는 이의 수심은 더한다
漢將猶防虜 우리의 장수들이 여전히 북방 오랑캐를 막을 줄 모르니
吳官欲向秦 나는 장안으로 가고자 한다
布帆輕白浪 무명으로 만든 돛단배는 하얀 물결 가버이 가르고
錦帶入紅塵 비단 허리띠 맨 이는 세속으로 들어가노라
將底求名宦 무슨 높은 관직 구하려 하나
平生但任眞 평생을 두고 다만 진실의 도에 나를 맡기리

이것은 시인이 貞元三年(787年)에 秘書省校書郎을 제수 받아 강남을 떠나 장안으로 가면서 쓴 시로, 관직의 세계로 돌아가지만 여전히 ‘자연의 도’에 자신을 맡기고자 하는 심정을 드러냈다. 그런데 시 속에서 ‘강남’은 ‘붉은 먼지(紅塵)’로 상징되는 ‘세속’과 상반되는 세계로 뚜렷하게 형상화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렇듯 唐詩 속에는 ‘강남’을 ‘仕’의 意象과는 대립되는 면모를 보여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니, 이러한 意象은 唐代의 특수한 사회, 정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인문의상’이라 할 수 있다.

(나) ‘偏僻’한 지방의 意象

실제로 강남의 풍경은 아름다운 경물만이 펼쳐진 낭만적인 곳 만은 못된다. 강남 지역은 광활하며 산세가 험악한 곳이 즐비하고 민간 풍속도 京城과는 사뭇 다른 곳이 비일비재했다. 따라서 이렇듯 험악하고 생경한 지역을 방문한 북방의 문인이나 편적 당한 唐人들은 한편으로 ‘강남’의 매력적인 자연환경에 매료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가 발달한 경성과는 대립되는 ‘偏僻’한

14) 《全唐詩》, 第266卷, 第014首.

의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예를 들어, 심전기(656년?-714년)의 <夜泊越州逢北使>¹⁵⁾를 살펴보자.

天地降雷雨 천지에 우레와 비 내리고
 放逐還國都 쫓겨났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가노라
 重以風潮事 바람과 조수를 중히 여기니
 年月戒回艫 年月을 잘 골라 돌아갈 배 준비하네
 容顏荒外老 모습과 얼굴은 황무지 땅 밖에서 늙었고
 心想域中愚 마음과 생각은 나라 안에서 어리석었네
 憩泊在茲夜 이 밤에 쉬며 정박하노니
 炎雲逐斗樞 불꽃 같은 구름은 북두성을 쫓는다
 颺颺縈海若 회오리바람은 바다의 신을 휘감아 돌고
 霹靂耿天吳 벼락은 물의 신을 밝힌다
 鼉抃群島失 큰 거북이 손뼉 치니 못 섬들이 사라지고
 鯨吞衆流輸 고래는 못 흐름 모아서 들이키네
 偶逢金華使 우연히 조정의 사신 만나니
 握手淚相濡 손 부여잡고 서로 눈물 적시네
 飢共噬齊棗 허기지면 함께 齊 땅의 대추를 씹고
 眠共席秦蒲 즐리면 함께 秦 땅의 왕골 돛자리 까네
 既北思攸濟 (나는) 이미 북쪽에 마음 있기에 물을 건너는 것이라 하는데
 將南查所圖 (사신은) 남으로 향하는 것은 신중히 그곳을 도모하고자 함이라하네
 往來固無咎 가고 오는 것에 진실로 허물없거늘
 何忽憚前桴 어찌 홀연 앞으로 가는 뗏목을 꺼리는 것인가?

이것은 심전기가 神龍 3年(707年)에 펠릭지에서 사면 받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越州에서 조정 사신을 만나 지은 것이다. 시인은 펠릭지를 '황무지 밖(荒外)'으로 표현했으며, 越州의 경물에 대해서는 '불꽃같은 구름(炎雲)', '큰 거북(鼉抃)', '고래(鯨)' 등의 낯선 표현으로 매우 생경하게 표현하고 있다. 즉, 시인은 이러한 사물을 동원하며 '강남'을 매우 편벽한 지방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張籍(767年-830年)의 <江南行>¹⁶⁾을 살펴보자.

江南人家多橘樹 강남의 인가에는 귤나무가 많고
 吳姬舟上織白苧 오 땅의 미녀들은 배위에서 흰 모시를 짜네
 土地卑濕饒蟲蛇 토지는 낮고 습하여 벌레와 뱀이 많네
 連木爲牌入江住 나무 이어 뗏목 만들어 강 속 들어가 사네
 江村亥日長爲市 강가의 촌락엔 돼지날에 자주 시장이 서니
 落帆度橋來浦裏 돛 내리고 다리 건너 점포로 모이네
 清莎覆城竹爲屋 향부자 풀은 성을 뒤덮고 대나무로 집을 엮었고
 無井家家飲潮水 우물 없는 집마다 밀려오는 물을 마시네
 長干午日沽春酒 장간에선 정오에 봄 술을 사고
 高高酒旗懸江口 높디높은 주점 깃발은 강어귀에 걸렸네
 娼樓兩岸臨水柵 강 양변의 창루는 수책을 마주하고
 夜唱竹枝留北客 한 밤중 죽지노래는 북쪽 손님을 붙잡네
 江南風土歡樂多 강남의 풍속에는 즐거움이 많으니
 悠悠處處盡經過 한가로이 곳곳마다 즐기네

시는 강남의 자연풍광보다는 강 위에서 뗏목 생활하는 모습, 강가 촌락에서 사는 시장의 정경, 대나무로 만든 집, 강가 주점의 풍경 등 강남 서민들의 정겨운 모습을 묘사하는 가운데 京城의 풍속과는 매우 색다른 편벽하고 낯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강남의 생활풍습, 주거환경, 생활 습관이 中原의 그것과 차이가 나는 것에서 오는 '人文意象'의 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3. 江南 意象의 來源

고대 중국의 문인들은 기본적으로 나아가 '出任'하여 '建功立業'하는 것에 정치적 이상과 포부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고대 중국 가운데 유례없이 강대한 제국을 건설한 唐代의 문인들에게 드높은 이상과 영웅주의는 더욱 일반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르기 힘든 고달픈 현실세계의 이면에는 부드럽고 따스한 마음의 고향을 동경하기 마련이었다. '강남'은 바로 이러한 문인들의 심

15) 《全唐詩》, 第095卷, 第097首.

16) 《全唐詩》, 第382卷, 第044首.

리에 가장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고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심리를 근간으로 '강남'의 특수한 '의상'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唐代에 형성된 '강남'의 구체적인 '의상'을 역사적인 인문배경, 당대의 '漫遊' 풍조 및 唐代의 貶謫 문화에서 그 유래를 찾고자 한다.

(1) 역사적 인문 배경

일반적으로 先秦 시기에서 漢初 시기에 이르기 까지, '江南'이 문학에 등장하는 것은 주로 그 지역의 산세가 험악하다는 점을 묘사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관념은 司馬遷의 《史記》에 보이는 “강남의 땅은 지대가 낮고 습하여, 사내들이 일찍 죽는다.”¹⁷⁾라는 구절로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사실, 중국 문학에 '江南'이 시의 제목으로 등장하며 아름답게 묘사된 것은 아마도 漢代 樂府詩의 하나인 <江南可采蓮>¹⁸⁾에서 출발하는 듯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江南可采蓮 江南으로 연꽃 따러 가세
蓮葉可田田 연잎이 얼마나 퍼들퍼들한가
魚戲蓮葉間 물고기 연잎 사이에서 노닐고 있네
魚戲蓮葉東 물고기 연잎 동편에도 노닐고
魚戲蓮葉西 물고기 연잎 서편에도 노닐고
魚戲蓮葉南 물고기 연잎 남편에도 노닐고
魚戲蓮葉北 물고기 연잎 북편에도 노닐고 있네

싱그러운 연잎과 연잎 사이에서 노니는 물고기 떼를 묘사하며 활력 넘치는 강남의 아름다운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악부해제 《樂府解題》에서는 “무릇 향기로운 새벽의 아름다운 정경과 때를 만나 즐겁게 노니는 것을 아름답게 묘사한 것이다.”¹⁹⁾라고 언급하고 있다. 물론 이 시는 후세 문인들에게 강남의

'意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漢代에 있어서 '강남'은 아직 문인들에게 낯선 곳이었으며, 동시에 주목받지도 못한 곳이었다.

중국의 역사에 있어서 江南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東晉이 수도를 建康(현재의 南京)으로 삼아 남하해 온 이후부터이다. 이때부터 강남 산수의 아름다움은 서서히 문인들과 접촉을 시작하게 된다. 《晉書·王羲之傳》에서 “회계(會稽, 현재의 浙江省 紹興)에는 아름다운 산수가 있으며, 名士들이 많이 그곳에 거주한다. 사안(謝安)도 벼슬하기 전에 역시 그곳에 거주했다.”²⁰⁾라고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러나 江南의 아름다운 풍경이 본격적으로 문인들의 문학 속에서 審美의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아마도 南北朝 시기부터일 것이다. 南朝의 대표적인 민가인 <西洲曲>에서는 강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單衫杏子紅 홀적삼은 살구 열매처럼 붉고
雙鬢鴉雛色 양쪽 귀밑머리 머리카락은 갈가마귀 병아리 색이네
西洲在何處 서주는 어디에 있는가?
兩槳橋頭渡 양장교 번두리를 지났네
日暮伯勞飛 날 저무니 백로가 날고
風吹烏白樹 오구나무에 바람이 부네
.....
采蓮南塘秋 남쪽 연못에 가을오니 연을 따고
蓮花過人頭 연꽃은 사람의 머리보다 크네
低頭弄蓮子 머리 숙여 연밥을 희롱하니
蓮子青如水 연밥은 물과 같이 푸르다
.....

여기에서 '강남'은 선명하게 아름다운 풍경의 정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마침내 후세의 문인에게 많은 영감을 불러 넣어주게 된다. 후자는 “<西洲曲>은 중국 詩性 정신의 한 기조로, 모든 강남과 관계된 시문, 회화, 음악, 전설과 모

17) 司馬遷, 《史記·貨殖列傳》129卷(北京: 中華書局), 3268쪽: “江南卑濕, 丈夫早夭.”
18) 《樂府詩集》(北京: 中華書局, 1998), 384쪽.

19) 《樂府詩集》(北京: 中華書局, 1998年, 384쪽): “蓋美芳晨麗景, 嬉遊得時.”에서 인용.
20) 《晉書·王羲之傳》80卷: “會稽有佳山水, 名士多居之, 謝安未仕時亦居焉.”

든 강남의 인생, 어린 시절, 애정, 몽환 등은 모두 여기에서 그 최초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²¹⁾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南朝의 문헌에는 강남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구절이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東晉의 저명한 서예가 王獻之(344-386年)의 다음 구절은 매우 유명하다.

산음도(山陰道)를 따라 걸어가면 산과 강이 서로를 비치고 어울려 사람이 차마 다 볼 겨를이 없을 지경이다. 만일 가을과 겨울 사이에 간다면 그 풍경은 특히나 잊기 어려우리라.²²⁾

산음(山陰)은 현재 浙江省 紹興市에 위치한 蘭亭을 가리킨다. 위의 구절을 통해 남조의 많은 문인들이 이미 '강남' 산수의 아름다움에 현저하게 경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남조의 대표적인 시인인 謝靈運(385-433年)의 산수시 속에 보이는 강남의 아름다움은 唐代 시인들이 즐겨 찾으며 그 정신을 기탁했던 그러한 강남 산수의 源泉을 보여 주는 듯하다. 그의 유명한 시구를 예로 들어본다.

<登池上樓>²³⁾
池塘生春草 연못에는 봄 풀이 돌아나고
園柳變鳴禽 들의 버드나무에서는 새가 지저귀네
<石壁精舍還湖中作>²⁴⁾
昏旦變氣候 아침 저녁으로 기후는 변하고
山水含清暉 산과 물은 맑은 햇살 머금고 있네
<登江中孤嶼>²⁵⁾
雲日相暉映 구름과 물이 서로 빛을 내며 비치고

21) 劉士林, 《西洲在何處-江南文化的詩性敘事》(北京: 東方出版社, 2005), 36쪽: “<西洲曲> 是中國詩性精神的一個基調, 所有關於江南的詩文, 繪畫, 音樂, 傳說, 所有關於江南的人生, 童年, 愛情, 夢幻, 都可以從這里找出最初原因.”
22) 《世說新語校箋》(北京: 中華書局, 1994), 82쪽: “王子敬曰, 從山陰道上行, 山川自相映發, 使人應接不暇. 若秋冬之際, 尤難爲懷.”
23) 顧紹柏校注, 《謝靈運集校注》, 中州古籍出版社, 1998, 63쪽.
24) 顧紹柏校注, 《謝靈運集校注》, 中州古籍出版社, 1998, 112쪽.
25) 顧紹柏校注, 《謝靈運集校注》, 中州古籍出版社, 1998, 83쪽.

空水共澄鮮 하늘과 물이 모두 맑고 고와라

위의 구절은 모두 사령운이 浙江 일대의 산수를 아름답게 묘사한 것으로, 인구에 회자되는 名句들이다. 또한 謝朓(464-499)의 <入朝曲>²⁶⁾ 역시 강남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으로 인구에 회자되는 다음의 名句를 포함하고 있다.

江南佳麗地 강남은 아름다운 땅
金陵帝王州 금릉은 제왕의 고을이여라
逶迤帶綠水 푸르른 물 굽이굽이 띠가 되어 흐르고
迢遞起朱樓 붉은 누대는 드높이 솟아 있구나

이 밖에도 남조의 많은 시편 속에는 강남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작품들이 그야말로 비일비재하다. 물론 이러한 묘사가 후세 唐人들이 강남에 대해 아름다운 인상을 갖게 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었음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절국 위와 같이 前代의 역사 속에서 쌓여온 인문 배경은 후세 唐代 문인들에게 강남을 인식하는데 하나의 '선입관'과 같은 역할을 담당했음은 자명한 것이요,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강남'은 '아름다운 곳'이라는 '의상'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2) 唐代的 漫遊 풍조

唐朝는 중국의 南北朝 분열을 진정으로 통일 시켜 유례없이 강력한 국가를 이룬 왕조이다. 사회는 안정되고 경제는 번영을 구가했으며, 국토는 남북으로 드넓은 영토로 확장시켰고 남북의 교통은 運河의 개통 등으로 더없이 편리해졌다. 이러한 모든 조건은 문인들로 하여금 소위 산수를 '자유롭게 유람하는

26) 曹融南校注, 《謝宣城集校注》, 上海古籍出版社, 2001, 149쪽.

(漫遊) 풍조를 유행시키게 했다. 사실, “東晉 이후부터 산수 감상이 자주 詩文 중에 반영되었지만, 그러나 산수 감상이 ‘자유롭게 유람하는(漫遊)’ 것으로 확대되고 아울러 한때의 유행이 된 것은 당대부터 시작 된 것”²⁷⁾이었다. 실제로 唐代의 저명한 시인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漫遊’의 경력을 갖는 이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王維, 孟浩然, 吳筠, 李白, 杜甫, 崔顥, 白居易, 張繼, 李賀, 溫庭筠 등이 모두 그러하다.

먼저, 王維(701?-761年)는 약 開元 17년(729년)경 펠적지 濟州에서 長安으로 돌아온 이후 적막한 마음을 안고 강남을 ‘漫遊’한 경력이 있는데, 이 당시 왕유는 潤州, 常州, 蘇州, 宣州, 越州 등을 유람한 적이 있다. 강남의 산수를 배경으로 창작한 그의 <淮陰夜宿二首>, <夜到潤州>, <山行遇雨> 등은 모두 이 시기의 작품이다. 孟浩然(698-740)은 開元 17년에 長安에 올라와 두 번에 걸쳐 과거시험에 응시하지만 모두 낙방을 하게 되고, 이후 수심을 안은 채 강남을 유람하게 된다. 그의 <自洛之越>에서 “허둥지둥 삼십년 세월 보냈으나, 문과 무에서 모두 이룬 것이 없노라. 산수 속에서 오월을 찾노라니, 풍진 속의 낙양 서늘이 싫증나노라.”²⁸⁾라고 읊은 것은 바로 이때의 실제 심정이었다. 그의 <越中逢天台台一子>, <夜渡湘水>, <宿建德江>, <若耶溪泛舟> 등이 모두 강남을 유람하며 지은 詩作이다.

한편 중국 각지를 ‘자유롭게 유람했던’ 시인으로 李白(701-762年)을 빼 놓을 수 없다. 특히 강남 지역만을 놓고 본다면, 이백은 開元 12년(724年)에 처음으로 金陵, 剡中을 유람했고, 天寶末年에 또다시 金陵, 宣城을 유람했으며, ‘安史之亂’ 당시에는 會稽, 剡中으로 피신한 바가 있다. 그는 일생을 두고 그 특유의 낭만적인 어조로 강남의 아름다운 산수를 노래하였으니, <登金陵鳳凰臺>, <秋登巴陵望洞庭>, <秋登宣城謝朓北樓>, <過崔八丈水亭> 등이 모두 그 좋은 예이다. 杜甫(712-770) 역시 약 20세 되던 해부터 약 3, 4년 동안 江寧, 蘇州, 越州 등지를 유람한 바 있으며, 이때의 상황은 그가 말년에

27) 李美容, <論唐代文人的漫遊>, 《湖南冶金職業技術學院學報》, 第6卷, 第4期, 510쪽: “東晉以後, 山水漫遊常反映到詩文中來, 但從山水遊賞擴大到漫遊, 并且成爲一時風尚, 則始於唐代.”
28) 注13 참조.

회고하며 쓴 <壯遊> 시에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다.

또한 <楓橋夜泊>으로 유명한 張繼(대략 753년 전후 활약) 역시 일찍이 會稽, 越中, 蘇州 등지를 漫遊한 적이 있으며, <登丹陽樓>, <會稽郡樓雪霽>, <閩門卽事> 등의 詩作을 선보였다. 晚唐의 溫庭筠(812-872)은 강남을 유람하며 지은 詩作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데, 그는 太原이 고향이나 스스로 “강남을 고향으로 여겼으며, …金陵, 常州, 蘇州, 廣陵 등에서 모두 유람하며 제목을 부쳐 읊은 시가 있다.”²⁹⁾ <南湖>, <題竹谷神祠>, <蘇小歌>, <錢唐曲>, <題陳處士幽居> 등이 모두 그 좋은 예이다.

이와 같이 唐代의 많은 시인들은 강남을 직접 보고 감상하며 ‘漫遊’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이들은 강남을 ‘만유’하거나 혹은 그 후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강남과 관련된 제재를 시로 읊고 노래한 경우가 많았으니 ‘강남’이 唐代 시가 속에서 하나의 ‘의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詩作이 배출된 것은, 바로 당대에 유행했던 이러한 ‘만유’의 풍토에서 그 주요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3) 貶謫 문화의 배경

강남의 수려한 대자연은 단순히 아름다운 審美의 대상만은 아니었다. 그곳은 失意한 문인들이 찾아 왔을 때, 한편으로는 지친 몸과 마음에 안식을 제공해주는 안식처가 되어 주거나 혹은 ‘은일’의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낯설고 편벽한 모습으로 다가왔다. 특히 貶謫으로 인해 강남으로 유배 온 문인들에게 있어서, 강남의 ‘의상’은 그러한 범주를 크게 넘지 않고 있다.

한편, 강남은 예로부터 정치의 장에서 펠적지로 자주 활용되고 있었는데,

29) 陳尚君, <溫庭筠早年事迹考辨>, 《唐代文學叢考》(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7), 357쪽: “庭筠以江南爲故鄉, …金陵, 常州, 蘇州, 廣陵, 均有其紀遊題詠詩.”

이는 隋代의 孫萬壽(559年?-611年?)는 “강남은 장려병의 땅으로, 예로부터 쫓겨난 신하가 많았다.”³⁰⁾라고 읊은 바와 같다. 특히, 貶謫의 정치 문화가 유난히 성행했던 唐代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했다. 물론, 강남으로 폄적당한 문인들은 그곳을 방문하며 강남을 노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일례로, 景龍3年(709년)에 越州長史로 폄적당해 越州로 가던 길에 杭州를 지나며 지은 宋之間(656년?-712년)의 <靈隱寺>³¹⁾를 살펴보자.

鷺嶺鬱嵒峽 취령은 높디높은 봉우리들로 꼭 막히고
 龍宮鎖寂寥 사찰은 적막에 잠겨있도다
 樓觀滄海日 누대에선 푸른 바다의 해를 바라보고
 門聽浙江潮 문에선 질강의 물결 소리 듣노라
 桂子月中落 계수나무는 달 속에서 떨어지고
 天香雲外飄 하늘 향기는 구름 밖으로 날아다닌다
 捫蘿登塔遠 넝쿨을 부여잡고 먼 탑에 오르고
 剝木取泉遙 나무를 깎아 아득히 먼 샘물을 뜬다
 霜薄花更發 서리 얇게 깔리니 꽃은 다시 피어나고
 冰輕葉互凋 얼음 가벼워지니 나뭇잎은 서로 시든다
 夙齡尙遐異 어려서부터 먼 괴이함을 좇았거늘
 搜對滌煩囂 마침내 찾아내어 번잡하고 시끄러운 것을 씻어 내노라
 待入天台路 천태산 길목으로 들기를 기다렸다가
 看予度石橋 석교로 건너가는 나를 보노라

시는 전반에 걸쳐 '먼 기이한(遐異)' 강남의 경물을 매우 낮선 분위기로 묘사하고 있어 '偏僻'한 지방의 의상을 드러내는 가운데 “마침내 찾아내어 번잡하고 시끄러운 것을 씻어 내노라.(搜對滌煩囂)”라고 읊으며 영혼의 안식을 찾고 있다.

또한 唐代의 시인 가운데 白居易(772年-846年)는 일생에 걸쳐 세 번이나 강남으로 폄적된 것으로 유명한데, 그의 시 가운데에는 폄적 중에 체득한 '강남'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거나 '강남'을 은일의 장소로 여긴 것들이 허다하다. 또한

30) 孫萬壽, <遠戍江南寄京邑親友>: “江南瘴癘地, 從來多逐臣.”(逯欽立, 《先秦漢魏晉南北朝詩》, 北京: 中華書局, 1983, 2638쪽)

31) 《全唐詩》, 第53卷, 第030首.

그는 특별히 '西湖'를 사랑하여 西湖를 배경으로 한 詩作만 해도 <杭州春望>, <春題湖上>, <湖亭晚歸> 등 수십 편에 달한다. 이 가운데 <錢塘湖春行>³²⁾을 살펴보자.

孤山寺北賈亭西 고산사(孤山寺)의 북쪽에서 가정(賈亭)의 서쪽으로 오니
 水面初平雲脚低 호수는 막 물가와 평평해 지고 구름은 낮게 드리워졌네
 幾處早鶯爭暖樹 몇 곳에서 이른 피꼬리는 따스한 나무로 앞 다투어 날고 있으며
 誰家新燕啄春泥 누구의 집에서 새로 온 제비는 봄 진흙으로 집을 짓는가
 亂花漸欲迷人眼 어지러운 봄꽃은 점점 사람의 눈을 미혹하고
 淺草才能沒馬蹄 아트막한 봄풀은 비로소 말발굽을 덮을 수 있네
 最愛湖東行不足 가장 사랑하는 것은 서호의 동편이나 유람이 부족할지니
 綠楊陰里白沙堤 녹음 진 수양버들 속의 백사 제방이라

이 시는 백거이가 杭州刺史로 폄적되어 長慶3年(823年) 혹은 長慶4年(824年)에 지은 것이다. '전당(錢塘)'은 '서호'의 다른 이름이다. 고산사(孤山寺)는 서호 가장자리의 孤山에 위치한 사찰이며, 가정(賈亭)은 唐代 杭州刺史를 지낸 賈全(賈全)이 지은 정자이다. 호수의 물이 봄이 되어 불어나 제방과 비슷한 높이가 되고 그 가장자리에는 녹색의 버들가지 그리고 하늘가에 낮게 드리워진 구름은 물결과 하나가 되는 풍경은 그야말로 '강남'의 전형적인 면모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풍경 속에서 시인이 유유자적 閑寂하게 玩賞하는 모습이 눈앞에서 펼쳐진다. 중요한 것은 백거이가 이렇듯 강남을 마음의 안식처로 여기며 유유자적 자연을 玩賞할 수 있었던 것은 강남으로 폄적되어 왔던 그의 개인적 경력에서 그 주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당대의 많은 시인들은 '강남'으로 폄적되어 정치적 시련을 겪으며 강남을 노래한 바 있다. 예를 들어, 杜審言, 沈佺期, 宋之間, 張說, 張九齡, 王昌齡, 賈至, 白居易, 元稹, 韓偓 등은 모두 강남 일대로 폄적을 당한 경험이 있는 시인들로, 이들 대부분은 모두 많건 적건 간에 강남의 산수를 통해 세속과는 동떨어진 영혼의 안식을 추구하는 詩作들을 창작하거나, 혹은 偏僻하고 낮선 지방의 '意象'의

32) 《全唐詩》, 第443卷, 第042首.

詩作을 창작한 바 있다.

사실, '강남'은 당대에 있어서 가장 선호되었던 편적지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도표³³⁾로 엿볼 수 있다.

時期 地域		初唐	盛唐	中唐	晚唐	小計
		北方	京畿道	4	8	20
關內道	7		0	2	1	10
都畿道	8		13	27	41	89
河南道	20		13	3	26	62
隴右道	2		2	0	0	4
河北道	11		14	0	3	28
河東道	9		14	20	12	55
南方	淮南道	15	11	9	10	45
	山南東道	9	12	31	30	82
	山南西道	13	12	18	19	62
	江南東道	17	21	48	38	124
	江南西道	20	29	71	37	157
	劍南道	23	8	9	12	52
	黔中道	9	8	8	5	30
嶺南道	42	14	21	49	126	
其他	11	7	2	2	22	
總計	220	186	289	305	1,000	

위 도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唐代에는 '江南東道'로 124명, '江南西道'로 157명의 문인이 편적을 당해, 전체 편적 문인 1000명 가운데 무려 281명이 '강남'으로 편적을 당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 편적지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가장 많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강남'이 편적을 배경으로 한 唐詩 속에서 그렇게 자주 제재로 등장했던 것이다. 따라서 '강남'이 唐詩 속에서 하나의 '의상'으로 자리 잡는데 당대의 '편적' 문화가 큰 역할을 했음을 엿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시가 속에 등장한 '강남'의 '意象'은 주로 아름다운 장소 혹은 안식의 장소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와 함께

정치 중심지인 長安과는 대립되고 아울러 '仕'와는 상반되는 '의상'으로 형상화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또한 편벽한 지방의 '의상'도 함께 표현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4. 결어

'江南'이 중국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은, 東晉시기에 수도를 建康으로 옮기고 난 뒤의 일이다. 이후 南朝의 각국이 역시 이곳에 수도를 정해 많은 문인들은 본격적으로 '강남'의 산수와 접촉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물론, 강남의 수려한 산수를 예찬하는 문장과 詩作이 자주 선을 보이게 되었고, 이는 후세 唐人들이 강남을 아름다운 장소로 인식하는데 先河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唐代에 이르러 '강남'은 더욱 본격적인 시의 제재로 환영받게 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당대에 이르러 '강남'은 시가 속에서 비교적 복잡하고 다양한 '意象'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수려한 '강남'의 산수 자연에서 주로 유래하는 '강남'은 '아름답다'라는 전통적인 '자연의상'을 긍정하는 한편, '강남'의 인문 역사 및 唐代의 정치, 사회, 문화에서 유래하는 또 다른 '인문의상'을 함께 표현하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강남'의 '인문의상'을 크게 두 가지 방면에서 고찰하였다. 첫째, '강남'을 京城인 長安에서 벼슬을 하고 중앙의 정치에 참여하는 '仕'와 대립되는 '의상'으로 보는 것이다. 특히 이것은 唐代의 사대부들 사이에 만연해 있던 '隱逸'의 풍조와 맞물려 '강남'을 '은일'의 장소로 인식하는 경향까지도 낳게 했다. 두 번째는 적지 않은 唐詩 속에서 '강남'은 풍속이 中原과 상이하고 자연 풍토가 매우 기인한 偏僻한 지방의 '의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그것이다.

'강남'은 唐代에 이르러 위와 같이 비교적 다양한 '의상'을 갖게 된 것은, 주로

33) 尙永亮, 《唐五代逐臣與貶謫文學研究》(武昌: 武漢大學出版社, 2007年, 75쪽)에서 재편집.

남조 시대부터 누적되어 오던 강남에 관한 역사, 시가, 문장 등의 인문 배경 외에도, 唐代에 만연해 있던 '漫遊'의 사회 풍조와 '貶謫'의 정치 문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를 長安으로 삼았던 唐代의 문인들이 강남을 제재로 그렇게 많은 詩作을 선보이게 된 것은 '자유스럽게 유람(漫遊)'을 하며 시가 창작을 병행했던 당대의 특수한 사회 풍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중앙의 정치 환경에서 여의치 않아 지방으로 쫓겨나가거나 유배되는 '僻적'의 정치 문화는 당대에 매우 성행했었는데, '강남'은 바로 그러한 '僻적지'로 가장 선호 받았다. 따라서 당대의 많은 문인들은 이를 통해 보다 전폭적으로 '강남'의 산수와 접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들이 시가 속에서 선보인 '강남'의 '의상'은 단순히 '아름다움'에만 머물지 않고 자신의 여의치 않은 심정을 토로하며 좀 더 다양한 면모로 드러나게 된다. 특히 산수를 시의 제재로 삼아 본격적인 산수시를 창작하며 '山水詩派'까지 형성했던 唐代에 있어서, 위와 같이 많은 문인들이 '강남'을 방문하고 그것을 시를 통해 표현하게 되었을 때, '강남'이 좀 더 다양한 '의상'으로 표현되었다는 점은 자연스런 일이 될 것이다.

< 參考文獻 >

景遐東, <唐前江南概念的演變與江南文化的研析>, 《沙洋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008年, 第1期
 景遐東, <唐代文人漫遊江南之風及其影響>, 《沙洋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006年, 第3期
 左 鵬, <論唐詩中的江南意象>, 《江漢論壇》, 2004年, 3月.
 李美容, <論唐代文人的漫遊>, 《湖南冶金職業技術學院學報》, 第6卷, 第4期.
 劉士林·徐雁平·朱逸寧·耿波, <江南文化與江南詩學筆談>, 《江蘇大學學報》, 2004年, 1月.
 景遐東, 《江南文化與唐代文學研究》,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5年.
 尚永亮, 《唐五代逐臣與貶謫文學研究》, 武昌: 武漢大學出版社, 2007年.
 劉士林, 《西洲在何處-江南文化的詩性敘事》, 北京: 東方出版社, 2005年.
 袁行霈, 《中國詩歌藝術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7年.
 喬象鍾·陳鐵民主編, 《唐代文學史》,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5年.
 陳植鏗, 《詩歌意象論》,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0年.

張 鵬, 《樂府古辭江南考論》, 中國社會科學院碩士學位, 2003年.
 陳尙君, 《唐代文學叢考》,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7年.
 遯欽立, 《先秦漢魏晉南北朝詩》, 北京: 中華書局, 1983年.
 《全唐詩》, 北京: 中華書局, 2008年.

< 中文提要 >

在唐代文人的視野裏, 江南是一個詩歌意象, 是一種詩意的審美主體。本文試圖從詩歌意象的角度解讀唐詩中的江南形象, 通過對江南的自然意象, 人文意象的整理與分析, 展現唐代江南獨特的氣質與風貌。本文認為唐詩將江南看為一種美麗景物的象征, 這是作為自然意象的江南所具有的主要內容; 作為: 人文意象的江南, 其主要內容包括: 一, 西湖是江南文化的代表; 二, 江南是一個與“仕”相對立的文化觀念; 三, 江南是一個偏僻的文化場所。通過上述分析, 本文力圖探討唐代文人詩化江南意象的內在原因, 並進一步領悟唐人對江南的文化感知。

關鍵詞: 江南、意象、唐詩、漫遊、自然意象、人文意象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 간
2009.8.29	2009.9.17	2009.10.7	2009.10.12	2009.10.30